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대한 기술 방법*

요시모토 하지메(吉本一)**

< 次 例 >

1. 들어가기
2. 주어 제약에 관한 기술
3. 서술어 제약에 관한 기술
4. 기타 제약에 관한 기술
5. 마무리

1. 들어가기

한국어에서 연결어미는 그 수효도 많을뿐더러 쓰임도 다양해서 오래 전부터 깊은 관심을 받아 왔으며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한 연구 속에서 여러 가지 문법적 제약을 논하는 경우가 많다.

국어학 연구를 보면, 특히 허웅(1995:774-975, 1999:859-988)에서 방대한 언어 자료와 더불어 100개 이상에 이르는 연결어미의 문법 현상을 간략하게 정리·기술하였다. 거기에서 선행절과 후행절²⁾의 주어 일치 제약, 서술어 선택 제약, 문장 종류의 제약 등을 논하였는데, 그 분석 결과는 대부

* 이 논문은 나카니시(中西恭子) 선생님과 공동 연구를 심화·보충한 것임.

** 동국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1) '연결어미'에 해당되는 용어로서 '접속어미', '이음씨끝' 등도 있다.

2) '선행절/후행절'은 각각 '선행문/후행문', '앞절/뒷절', '앞 문장(앞문장)/뒤 문장(뒷문장)'이라고도 한다. 인용할 때에는 원문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분 제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을 언급할 때에도 “대체로 ~인 듯”, “대개 ~인 것이 많다”는 식으로 단정을 피하거나 물음표(?)를 붙임으로써 확실하지 않음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간혹 단정한 경우에도 바로 거기에 반례가 보이기도 하고,³⁾ 또한 거기에는 반례가 없더라도 쉽게 반례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⁴⁾ 그만큼 문법적 제약을 논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 잇따라 간행되고 있는 한국어교육 개론서에서도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이나 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면서 역시 여러 가지 문법적 제약을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립국어원(2005a:112-116)에서는 “연결어미로 문장을 연결하는 데는 몇 가지 제약이 있다”고 하면서 (1)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에 대한 제약의 문제, (2)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 일치 제약의 문제, (3) 결합하는 서술어에 대한 제약의 문제, (4) 문장 종류 제약의 문제, (5) 부정문 제약의 문제 등 다섯 가지를 들었고, 그 외에도 많은 제약이나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교육 개론서 등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관한 기술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위의 분류를 따르면, 특히 (2)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 등에 관한 문제와 (3) 결합하는 서술어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나머지 (1)·(4)·(5)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이 논문은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대해 독창적인 이론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발견을 소개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연구들 사이에 서로 어

3) 예를 들어, 허웅(1999:898, 915, 928, 956) 등에서 “두 입자는 다름”(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름) 또는 “두 입자는 같음”(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설명과 다르게 분석했다.

4) 예를 들어, 허웅(1999:890)에서 ‘견준’의 ‘-으나’의 경우 “두 입자는 다름”(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름)이라고 했는데, “부모는 자식들이 미우나 고우나 똑같이 뒷바라지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1044)와 같은 예문이 반례가 될 것이다.

긋나는 기술이 있을 때 실제 용례를 통해 어느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여 한국어교육 개론서들이 계속 간행되는 이 시점에서 그 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시급하고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책은 이희자·이종희(1999, 2001, 2006), 국립국어원(2005a, b), 백봉자(2006) 등을 비롯한 한국어교육 개론서이며, 필요에 따라 연구서·논문·사전과 실제 언어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용례를 제시할 때는 가능한 한국어교육이나 국어학에 관한 저서·논문·사전 등에서 뽑은 것과 일반 서적인 소설·수필 등에서 뽑은 것을 균형 있게 제시하도록 한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의 언어 감각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양쪽에 반례가 나타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학자가 만든 문장이나 작가가 만든 문장이나 용례로서 지니는 가치는 똑같다고 본다.

한국어교육 개론서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을 분류하면, (1)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는데 약간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 것, (2) 의미기능에 따라 문법적 제약을 달리 기술해야 하는 것, (3) 실제 언어 현상과 완전히 다르므로 정정해야 하는 것 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본론에서 연결어미별로 검토한 뒤 마무리에서 정리를 하겠다.

2. 주어 제약에 관한 기술

주어 제약을 둘러싼 문제는 크게 (1)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하는가, (2) 각각 주어의 인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문제를 살피기 전에 우선 주어라는 용어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언

급해 두겠다.

연결어미의 용법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하거나 주어의 인칭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대한 기술은 학습자에게 아주 유의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란 무엇인가가 명백히 정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정의가 적어도 한 책 안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어’를 미리 정의해 놓고 논의를 펼치는 책은 거의 없고, 주어라는 용어가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연희(2003:455)에서는 ‘-(으)면서’가 쓰일 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 일치해야 한다고 한 다음에 “사람은 많으면서 땅은 좁다.”, “품질은 나쁘면서 값만 비싸다.”와 같은 용례를 들어, 이런 문장은 주어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표면상의 주어’가 아니라 ‘숨어 있는 주어’를 상정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한편 같은 책에 실린 오경진(2003:385-386)에서는 ‘-길래’에 대해 선행절 주어가 보통 2·3인칭이며 후행절 주어가 1인칭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머리가 아프길래 약을 먹었어요.”와 같은 용례를 들어, 이 문장은 선행절의 ‘실제 주어’가 1인칭이지만 ‘표면상의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숨어 있는 주어’가 아니라 ‘표면상의 주어’를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때로는 ‘숨어 있는 주어’를 기준으로 논하고 때로는 ‘표면상의 주어’를 기준으로 논한다면, 주어의 일치 제약이나 주어의 인칭 제약을 거론하는 의미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된다.

요시모토·나카니시(2007)에서도 논했듯이, 주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한국어교육에 있어서 그 답을 반드시 찾

아내야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문법 용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일은 꼭 지켜져야 할 대목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잠정적으로라도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것을 주어라고 한다”라는 정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정의는 그 책 안의 모든 기술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개론서들의 기술을 연결어미별로 하나씩 검토해 보자.

2.1 -(으)면서 · -(으)며

국립국어원(2005a:114, 122, 2005b:702-703, 708)에서는 ‘-(으)면서’·‘-(으)며’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항상 같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으)면서’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다는 기술이 송창선(1997:75), 정연희(2003:454-456), 백봉자(2006:306-307) 등에도 보인다. 반면 허웅(1995:938-943, 1999:949-952)에서는 ‘-(으)면서’·‘-(으)며’에 주어 일치 제약은 없다고 분석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으)면서’의 의미 분류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어사전이나 선행 연구에서 ‘-(으)면서’의 의미로서 ‘동시’와 ‘대립’의 두 가지를 들었다.⁵⁾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주어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존 개론서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 (1) 열이 나면서 머리가 지끈거린다. (국립국어원 2005a:122)
- (2) 비가 오면서 별이 났다. (최현배 1929/1999:306, 허웅 1995:940, 1999:950)
- (3) “사장님, 봉급은 많이 주시면서 할 일이 없으니 신경이 쓰입니다.” (김태광 『라이프 스토리 50』 p.113)

5) 송창선(1998: 68-75)에서는 동시의 ‘-(으)면서’와 대립의 ‘-(으)면서’를 다르게 형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였다.

위의 예문 중 (1)은 '동시', (2)·(3)은 '대립'으로 보인다. '-(으)면서'의 두 주어가 다른 경우에 대하여 국립국어원(2005a: 122)에서는 사물이 주어 일 때는 주어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고, 정연희(2003: 455)에서는 표면상의 주어가 달라 보여도 사실상 동일한 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2)에 대해서는 주어가 사물이라고 보든지 아니면 '나는'이나 '날씨는'과 같은 '숨어 있는 주어'를 상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지만 (3)에는 그러한 설명이 통하지 않으므로,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예외가 있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과 같은 문장은 비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라 하더라도 한국어 모어 화자가 만든 문장을 비문이라고 일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⁶⁾ 학자의 직관도 중요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직관은 한국어 모어 화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 모어 화자도 말이 헛나온다든지 하는 말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간된 서적의 경우 그런 단순한 말실수는 거의 없을 것이며, 명백한 오자 따위를 제외하고는 비문이라고 배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문장을 비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문법 이론에 기댄 것이라면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된다. 직관을 가지고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방법에 불과하다. 다만 어떤 문장이 어색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어색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만들거나 사전·저서·논문 등에 인용한 문장, 한국어로 문예를 창작하는 작가들이 만들어낸 문장들이 비록 어색할지라도 수집된 용례를 배제하지 않는다. 만약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비문이라고 부정되어야 하는가? 한국어 학자나 프로 작가보다 엄격한

6) 맞춤법과 같은 어문 규범에 관해서는 옳고 그름을 지적할 수 있다.

기준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이 점은 이하 논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으)면서’에는 위에 든 두 가지 의미기능 이외에 ‘계기(繼起)’, 즉 선행 절 사건 뒤에 후행절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693), 이희자·이종희(1999: 320), 서상규 외(2006: 290, 572), 허동진(2006: 163-164) 등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장광군(1999: 153-154)의 ‘동작 계기’나 윤평현(2005: 224-225)의 ‘기동(起動)’ 등도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뒤 주어 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⁷⁾ 다음 예들을 보자.

- (4)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의 표정이나 몸짓, 말투에서 하나의 유사한 점을 발견하고 있었다. (윤대녕 「지나가는 자의 초상」 『빛의 걸음걸이』 p.47)
- (5) 이순신 장군이 오면서 거기가 해군본부 비슷한 우수영으로 바뀌면서 자연히 팔도의 장인바치가 다 모였을 거예요. (박경리 『가설을 위한 망상』 p.273)
- (6) 하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우리가 생기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송윤지 「나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p.66)

‘-(으)면서’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첫 번째 ‘동시’의 경우는 국립국어원(2005a: 120-124, 2005b: 702-703, 707-709), 백봉자(2006: 299-300, 306-307)에서 논했듯이 ‘(으)며’와 바꿔 쓸 수 있으며, 두 번째 ‘대립’의 경우는 ‘-는데 /-은데’나 ‘-지만’과 바꿔 쓸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계기’의 경우 ‘-(으)에

7) 시바(1994: 139-141), 노마(1996: 147-148) 등에서도 ‘-(으)면서’의 의미기능으로서 ‘계기’의 의미를 인정하여 그러한 경우 주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 또는 '-(으)면서부터' 등과 바꿔 쓸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의미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으)며'에 대해서 '계기'의 의미를 논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김진수(1991: 38-39), 허동진(2006: 159)에서 인정하였으며, 장광군(1999: 139-146)에서는 '-(으)며'가 '동시진행'이나 '동시대조'의 의미일 때는 두 주어가 같아야 하는데 '동시나열'이나 '동작 계기'의 의미일 때는 두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다음 (7)·(8)이 '동시나열', (9)·(10)이 '동작 계기'의 예이다. '-(으)면서'에 '부터'가 붙어 '-(으)면서부터'가 되면 '계기'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듯이 (10)처럼 '-(으)며'에 '부터'가 붙어 '-(으)며부터'가 된 용례도 보인다.

- (7) 현재 그 집 부모는 서울에서 살며 아이들은 미국에서 산다. (백봉자 2006: 300)
- (8) 철수는 국어를 잘 하며 영화는 수학을 잘 한다. (백낙천 1999: 150)
- (9) 문득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한 대장이 길을 가로막고 외친다. (허웅 1995: 939)
- (10) 겨울에 들어서며부터는 부들을 짜개서 만드는 풍석이란 자리 짜는 것을 일삼았었다. (이양하 『신록 예찬』 p.92)

2.2 -(으)려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624), 이희자·이중희(1999: 282), 이은경(1998: 480-481) 등에 의하면 '-(으)려고'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는 같아야 하는데, 허웅(1999: 892), 백낙천(2001: 50)에서는 그러한 제약이 없다고 한다.

이것 또한 의미에 따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국립국어원(2005b:

667-670), 허웅(1995: 839-841, 1999: 892), 윤평현(1998: 295, 2005: 339), 장광군(1999: 216-223), 이익섭(2005: 373) 등에 따르면 ‘-(으)려고’에는 ‘목적·의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징조’ 또는 ‘징후’라고 할 만한 의미가 있다. ‘-(으)려고’가 ‘목적·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대체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으)려고’가 ‘징조’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약에서 벗어난다. 이 사실은 김진수(1988: 54), 강인환(1995: 134), 윤평현(1998: 295, 2005: 342), 백낙천(2001: 50) 등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국립국어원(2005b: 669)에서도 시사되었다. 또한 백낙천(2000: 178)에서 지적되었듯이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예외적인 쓰임으로 볼 필요가 없다.

- (11) 날이 새려고 동녘이 밝아온다. (윤평현 1998: 295)
- (12) 반가운 손님이 오려고 까치가 운다. (윤평현 1998: 295)
- (13) 가을엔 또 무슨 꽃이 피려고 그 새 코스모스가 만개한 것인지. (윤대녕 「낮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향」 『유턴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p.264)

그리고 국립국어원(2005a: 139)에 의하면 ‘-(으)려면’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으)려면’은 ‘-(으)려고 하면’이 줄어든 것으로, ‘-(으)려고’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많은 반례들이 발견된다. 이들은 ‘-(으)려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 (14) 물 끓으려면 잠시 기다려야 돼. (이희자·이종희 1999: 295, 2001: 536, 2006: 282)
- (15) 「[……]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짚는다고……」 (김병언 「저 바람 속

어디엔가」 『빛의 걸음걸이』 p.198)

- (16) 나라가 망하려면 간신들이 들끓는 법이라고 한다. (김영진 『이야기 韓國野史』 p.310)

2.3 -느라고 / -느라⁸⁾

국립국어원(2005a: 136, 2005b: 154), 진정란(2003: 361), 오경진(2003: 381-382, 388), 이희자·이종희(1999: 78-79, 2001: 179-180, 2006: 135), 김명희(1980: 199), 이숙(1985: 139), 조오현(1992: 417), 윤평현(2005: 172), 이익섭(2005: 367), 백봉자(2006: 161-162) 등에 의하면 ‘-느라고’나 ‘-느라’도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⁹⁾ 그런데 그러한 설명 바로 뒤에 반례가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설 등에서도 두 주어가 다른 용례를 찾을 수 있다.¹⁰⁾

- (17) 일이 잘 되느라고 마침 그때 남풍이 불어 왔다. (이익섭 2005: 367)
 (18) 그런데 일이 잘 되느라고 옥랑의 왼쪽 컷불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김영진 『이야기 中國野史』 pp.105-106)
 (19) 남편을 기다리느라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희자·이종희 2001: 179)
 (20) 왕헌은 여관에 들러 동지들과 이야기하느라 해가 저물었다. (한용운 『黑風 2』 p.75)

8) 많은 개론서와 선행 연구에서 ‘-느라고’와 ‘-느라’나 ‘-(으)려고’와 ‘-(으)러’ 등을 거의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백낙천(1999)에서는 그것들이 각각 다른 어미임을 강조하였다.

9) 오경진(2003: 380), 백봉자(2006: 161)에서는 주어가 부정물이어야 한다는 제약도 주었는데, 주어가 부정물인 경우도 있다.

10) 이카라시(1998: 5-6, 2002: 485-486)에서는 주어가 다른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후행절이 나타내는 동작·성질 등이 선행절의 주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문은 그러한 설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안주호(2007a: 423-424)에 의하면 ‘-느라고’에는 ‘목적·의도’, ‘동시’, ‘원인·이유’ 등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에서는 앞뒤 주어가 같아야 하지만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는 앞뒤 주어가 달라도 된다고 하였으며, 이 경우 ‘-(으)려고’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¹¹⁾ 그런데 예문을 보면 반대로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앞뒤 주어가 같아야 하고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앞뒤 주어가 달라도 되는 것 같다. 또한 장광군(1999: 246-248)에서는 ‘-느라고’의 앞뒤 주어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부정물 주어가 쓰일 때 ‘-(으)려고’와 마찬가지로 ‘징후’의 의미를 가지며 그 경우는 대체로 두 주어가 다르다고 풀이하였으나, 부정물 주어가 아닌 경우에도 두 주어가 다른 용례가 발견된다. 앞에 든 (17)·(18)은 부정물 주어가 쓰여 ‘징후’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이며, (19)·(20)은 긍정물 주어가 쓰여 ‘원인·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인데, 모두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다. 물론 (19)와 (20)이 속뜻으로는 각각 “(나는) 남편을 기다리느라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왕한은 여관에 들러 동지들과 이야기하느라 (모르는 사이에) 해가 저물었다.”와 같이 문장 주체의 심리적 차원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적어도 겉으로 나타난 주어는 서로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2.4 -자

‘-자’의 의미기능에 대해 국립국어원(2005a: 120-124)에서는 ‘동시’로 설명하였으나, 국립국어원(2005b: 847), 백봉자(2006: 394-395),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1517), 이희자·이종희(1999: 371-372, 2001: 768-770,

11) ‘동시’를 나타내는 구문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기술을 보이고 있다.

2006: 449-450), 허웅(1995: 946-947, 1999: 954-955), 윤평현(1998, 2005: 197-238), 서태룡(1998: 461), 허동진(2006: 261-263)에서는 ‘동시’ 또는 ‘나열’과 더불어 ‘계기’의 의미를 설정했다.¹²⁾ 이 ‘-자’의 경우도 두 가지 뜻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국립국어원(2005a: 114, 122)에서는 위에서 본 연결어미들과 반대로 ‘-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허웅(1995: 946, 1999: 954), 윤평현(2005: 212)에서는 두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우선 ‘동시’ 또는 ‘나열’의 경우는 “어떤 대상이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1517, 이희자·이종희 1999: 371, 2001: 769, 2006: 450)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 주어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

(21) 그는 의사이자 (동시에) 시인이다. (국립국어원 2005a: 123)

(22)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자 선생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희자·이종희 2001: 769, 2006: 450)

국립국어원(2005a)에서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반드시 달라야 한다고 한 것은 ‘계기’의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기’를 나타내는 용례 중에도 주어가 일치하는 예가 보이며, 예외라고 치부하기 힘들 만큼 너무나 많은 반례가 나온다. 즉, ‘-자’에는 주어 불일치 제약이 원래 없다고 보아야 한다.¹³⁾

12) 윤평현(1998: 293, 2005: 236-237) 등에 의하면 ‘-자’는 선행절의 사건과 후행절의 사건 사이의 시차가 상당히 클 수도 있다.

13) 국립국어원(2005a: 124)의 표를 보면 ‘-자’의 주어 일치 제약이 ‘있음(=)’(앞뒤 주어가 같아야 함)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 책의 서술을 따르면 ‘있음(≠)’(앞뒤 주어가 달라야 함)으로 바꾸어야 하겠지만, 언어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없음’으로 수정하는

- (23) 그는 풍금을 원성하자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랑하였다. (국립국어원 2005b: 847)
- (24) 어린아이는 선물로 장난감을 받자 마냥 즐거워했다. (국립국어원 2005b: 847)
- (25) 좌랑은 최명길을 보자 빙긋이 웃었다. (김훈 『남한산성』 p.167)

2.5 -기에 · -길래¹⁴⁾

국립국어원(2005b: 80), 조오현(1992: 421)에서는 이유의 뜻을 나타내는 ‘-기에’가 평서문에 쓰일 경우 선행절 주어는 1인칭이 아니고 후행절 주어는 1인칭이 되는 비동일 주어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26)에서는 선행절 주어도 후행절 주어도 둘 다 1인칭이며, (27)에서는 동일 주어는 아니지만 선행절 주어도 후행절 주어도 3인칭이다.

- (26) 최선을 다 했기에 후회는 없다. (서상규 외 2006: 90-91)
- (27) 오자서가 마지막 편지를 보내 온 곳이 송나라였기에 순무의 발걸음도 그리로 향했다. (정비석 『소설 손자병법 2』 p.217)

한편 장광군(1999: 240-242), 안주호(2001: 98-103), 진정란(2005: 361) 등에서는 ‘-기에’에는 위와 같은 주어의 인칭 제약이 없고 오히려 ‘-길래’에 적용되는 제약이라고 하였다.¹⁵⁾ 그런데 다음 (28)·(29)는 선행절과 후행

것이 마땅하다.

- 14) 오경진(2003: 383-384)에서는 “늘기에 너무 바빠요”, “구조하기에 역부족이다.”와 같은 용례까지 연결어미 ‘-기에’의 예로 보고 있으나, 이들은 명사형 전성어미 ‘-기’에 처격조사 ‘에’가 붙은 것들이다.
- 15) 다만 진정란(2005: 361-362)의 본문에서는 “평서문일 경우, 앞문장의 주어는 자유로우나 뒷문장은 항상 1인칭이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각주에서는 “뒷문장의 주어가 항상 1인칭이어야 하고 앞문장에 2·3인칭이 와서 동일주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라

절의 주어가 둘 다 1인칭이며 동일 주어로 보아야 하고,¹⁶⁾ (30)·(31)은 동일 주어는 아니지만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둘 다 3인칭이다.¹⁷⁾ 따라서 ‘-길래’에도 그러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 (28) 어제 피곤하길래 그냥 잤어. (진정란 2003: 362)
- (29) 「십심하길래 편지를 써 보냈지. […….]」 (정비석 『여인극장 5』 p.316)
- (30) 산 넘어 산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허용 1999: 872)
- (31) 때마침 이모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길래 어머니가 물었다. (김병언 「저 바람 속 어디엔가」 『빛의 걸음걸이』 p.173)

2.6 -더니 · -있더니

국립국어원(2005a: 203)에 의하면, ‘-더니’는 주어가 2인칭, 3인칭인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있더니’는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국립국어원(2005b: 353-354)에서는 ‘-더니’의 경우 말하는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주어로 와야 하는 데 비해 ‘-있더니’의 경우 앞의 주어는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야 한다고 했다. 장광근(1999: 186-193), 이희자·이종희(2001: 325, 2006: 204) 등에도 비슷한 기술이 보인다.

그런데 백봉자(2006: 212-213)에서는 ‘-더니’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선행

고 하였으며, 선행절 주어에 관한 기술이 일관성이 없다.

- 16) 안주호(2001: 106), 진정란(2003: 362)에서는 선행절에 형용사(또는 일부 자동사)가 쓰일 경우 1인칭 주어가 선행절과 후행절에 모두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 17) 안주호(2001: 104-108)에서는 후행절의 주어가 1인칭이 아닌 예외적 문장으로서, 간접화법의 경우, 비행위성 서술의 경우, 추측의 근거를 말하는 경우 등을 들었는데, 위에 든 예문은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절의 주어는 3인칭을 쓰는데 화자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말하는 경우에는 1인칭도 쓴다고 하면서 예를 들었으며,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들이 보인다.

- (32) 전에는 며칠 밤을 새도 괜찮더니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국립국어연구원 1999: 1512)
- (33) 웬지 아침에 기분이 좋더니 생일상을 내가 받게 되겠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1998: 490, 이희자·이중희 1999: 168)
- (34) “(전략) 혼자 다니기가 적적하더니 같이 다녀도 관계없을까요?” (한용운 『黑風 2』 p.57)

또한 백봉자(2006: 212-213)에서는 ‘-었더니’에 관해서도 역시 원칙적으로 선행절 주어가 1인칭인데 3인칭일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예가 나온다.

- (35) 성민이가 동건이에게 전화해 봤더니 아파서 집에 있더라. (국립국어원 2005b: 550)
- (36) 꽃이 지었더니 잎이 났다. (서정수 1996: 1255)
- (37) 석두가 이 말을 듣고 즉시 청원산으로 가서 행사를 만났더니 행사가 물었다. (최인호 『길 없는 길 4』 p.99)

3. 서술어 제약에 관한 기술

여기에서는 서술어와 관련된 문법적 제약의 기술을 검토한다. 서술어에 관한 제약은 (1) 선행절 서술어와 후행절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품

사의 제약이 있는가, (2) 선행절 서술어와 후행절 서술어로 쓰이는 용언에 의미 자질의 제약이 있는가 하는 두 가지이다. 연결어미별로 하나씩 검토해 보자.

3.1 -(으)려고 · -(으)러 · -고자

국립국어원(2005a: 115, 2005b: 665, 669), 허용 외(2005: 307) 등에 의하면 ‘-(으)려고’와 ‘-(으)러’는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며 선행 용언으로 동사만 쓰인다. 또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624), 이희자·이종희(1999: 282, 2001: 517, 2006: 278-279), 백봉자(2006: 266-267), 강인환(1995: 136-137), 장광군(1999: 212-213) 등에서 ‘-(으)려고’는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와만 쓰이며 ‘-(으)러’는 형용사 및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는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¹⁸⁾ 한편 국립국어원(2005b: 669), 허용(1995: 839-840, 1999: 892), 윤평현(1998: 295, 2005: 341-342), 이익섭(2005: 373) 등에서는 앞에서 논했듯이 ‘-(으)려고’가 ‘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의도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도 어울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38)·(39)는 비의도적 동사에 ‘-(으)려고’가 결합되어 ‘징조’를 나타내는 예, (40)은 형용사에 ‘-(으)려고’가 결합되어 ‘목적·의도’를 나타내는 예이며, (41)은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으)러’가 결합된 예이다.¹⁹⁾ (40)·(41)은 약간 예외적인 문장일 수도 있으나, 최소한 (38)·(39)와 같은 용법에 대해서는 기술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김수정(2004: 136)에서는 ‘-(으)러’가 이동동사뿐 아니라 인식동사(‘알다’ 등)와도 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강인환(1995: 136)에 “인수는 시간을 알려 서울역에 들렀다.”라는 예문이 나온다.

19) 윤평현(2005: 345)에서 ‘다니다’와 ‘-(으)러’가 결합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는데, 완전 동사 ‘다니다’와 불완전 동사 ‘다니다가’ 별개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 (38) 씩이 돋으려고 하는지 흙 속에서 파란 것이 보인다. (국립국어연구원 1999: 4838)
- (39) 가벼운 현기증으로 머리가 핑 돌려고 한다. (최일남 『아주 느린 시간』 p.200)
- (40) 사구(砂丘)에 코 처박고 나뭇굴지언정 제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과장된 몸짓까지는 아니로되, 글 장사의 본래적 성깔에 웬만큼 충실하려고 기를 쓴다. (최일남 『아주 느린 시간』 p.216)
- (41) 올 초 한국에 다녀러 갔을 때였다. (신아연 「내 어머니의 일생은 바다와 같았다」 『자식으로 산다는 것』 p.99)

‘-(으)려면’도 마찬가지다. 국립국어원(2005a: 139)에서 ‘-(으)려면’은 동사와만 어울리고 형용사와 ‘이다’와 함께 쓰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국립국어원(2005b: 680)에서는 동사, 형용사, ‘이다’에 붙는다고 하여 모순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반례를 찾을 수 있다.

- (42) 추우려면 한강이 얼 정도로 춥든지. (국립국어연구원 1999: 1893, 국립국어원 2005b: 680)
- (43) 날씨가 맑으려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으면 좋겠다. (국립국어연구원 1999: 4838)
- (44) 아이들이 활발하려면 어느 정도 시끄럽겠지요 (이희자·이종희 1999: 295)
- (45) “국가가 발전하려면 우선 백성들이 평안해야 한다. 또 백성들이 평안하려면 왕실이 화목해야 한다. [……]” (이찬우 『소설 훈민정음』 p.391)

‘-고자’에 대하여 이희자·이종희(1999: 20-21), 백봉자(2006: 103-104)에서는 동사에 붙어 쓰인다고 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139), 이희자·이종희(2001: 65, 2006: 66), 국립국어원(2005b: 56) 등에

서는 동사나 '이다'에 붙어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형용사에 '-고자'가 붙은 용례가 존재한다.²⁰⁾

(46) 여성들의 아름답고자 하는 끝없는 희망 (윤평현 2005: 355)

(47) 행복하고자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주석 『오직 하나뿐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 p.47)

후행절의 서술어에 대하여 국립국어원(2005b: 665, 66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624), 이희자·이종희(1999: 282, 2001: 517, 2006: 278-279), 김종록(1994: 302), 강인환(1995: 119), 허웅(1995: 844, 1999: 896), 윤평현(1998: 294, 2005: 335-356), 백낙천(2001: 44), 이익섭(2005: 374), 허동진(2006: 281) 등에서 '-(으)러'는 이동에 관한 목적을 나타내므로 후행절에는 '가다', '오다', '다니다' 등 이동동사만 쓰인다고 한다.

이 기술이 상당한 부분 맞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에 보듯이 예외도 결코 적지 않으며, 후행 용언의 제약을 논하는 논문 자체에 바로 반례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다. (48)의 '보내다' 따위는 대상이동 또는 소유이동을 나타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이동동사에 포함되지만, 윤평현(2005: 338)에서 말하듯 '-(으)러' 뒤에 이어진다고 논하는 이동동사는 주체이동 또는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일 것이기 때문에 역시 예외가 된다. 그 이외의 예문들에 나타난 '등록하다', '있다', '만나다', '붙이다', '기다리다', '들어왔다', '모험을 하다' 따위를 이동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20) 허웅(1995: 838, 1999: 891, 966)에서는 형용사나 '이다'에 붙는 예도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부지런하고자', '희고자', '사람이고자'는 '부지런히 하고자', '희어지고자', '사람이 되고자'의 줄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윤평현(2005: 355)에서는 좀 부자연스럽기는 하지만 형용사와 '-고자'가 결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경우에는 '의도'가 아니라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 (48) “그 일 혜순 씨가 타진하러 보냈던 건가? […….]” (이제하 『독층』 『개교 기념일』 p.306)
- (49) 김씨처럼 과자 만드는 기술을 배우러 이 학원에 등록한 주부는 지난 한 달 동안 30명. (김수정 2004: 177)
- (50) 영화는 선생님을 만나러 교무실에 있었다. (윤평현 2005: 343)
- (51) 영수는 연필을 얻으러 순영이를 만났다. (강인환 1995: 132)
- (52)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러 국회의원 소집공고를 붙였다. (강인환 1995: 133)
- (53) 신선은 배를 대고 길게 뻗은 푸른 절벽에 올라 / 별빛 달빛으로 너울대는 금빛 물결 보러 기다리네. (최인호 『유림 3』 p.95)
- (54) “네, 당신의 복수심을 위해 철저히 능욕당하러 들어앉았죠. 잘 알고 있어요.” (조아 『사랑이 떠난 시간』 p.127)
- (55) “[……] 돈 찾으러 모험을 하는 얘기였어요 […….]” (김지원 『소금의 시간』 p.165)

특히 ‘무엇 하러’라는 형식 뒤에 오는 서술어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이 사실은 윤평현(2005: 344)에서 지적되어 있다. ‘무엇 하러’ 뒤에서 서술어의 제약이 없어진다는 사실은 ‘-(으)러’ 뒤에 이동동사가 온다는 제약이 본질적인 것이 아닐 가능성도 시사한다.

- (56) 그는 시중에도 파는 송곳을 뭘 하러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성한 『그와 그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p.143)

한편 장광군(1999: 215-216)에서는 ‘무엇 하러’를 하나의 관용형으로 보고 이 경우는 후행 용언으로 이동동사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엇 하러 왔어?”, “그런 데를 무엇 하러 가?”와 같은 말들이 흔히 쓰이므로 적절한 설명은 아니라 하겠다.

3.2 -느라고 / -느라

오경진(2003: 380-381)에서는 '-느라고'가 쓰이는 문장의 선행 용언도의 지를 나타내는 동사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허용(1995: 843, 1999: 894)에서는 역시 의도적이 아닌 일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쓰인다고 하였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느라고'에는 '목적·의도', '원인·이유', '동반/동시' 등의 의미가 있는데(안주호 2007a: 419-421, 2007b: 103), '원인·이유'나 '동반/동시'의 경우는 선행 용언이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닐 수 있다.²¹⁾

(57) 비가 오느라고 날씨가 무더웠구나. (백봉자 1980: 80)

(58) 나중에 들었지만, 그때 연옥의 전화를 받고 그 사람은 우느라고, 눈물이 나느라고 전화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한다. (송정연 『사랑의 의미를 묻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p.133)

(59) 회사에서 욕을 먹느라고 늦었습니다. (최인호 『겨울나그네』 『최인호 시나리오 전집 3』 p.101)

국립국어원(2005a: 137, 2005b: 154), 허용 외(2005: 305), 이희자·이종희(2001: 179-180, 2006: 135), 김수정(2004: 163, 176) 등에 의하면 '-느라고'가 '원인·이유'를 나타낼 때에도 '목적'을 나타낼 때에도 후행절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고 한다.²²⁾ 이런 설명은 김명희(1980: 201), 백봉자(1980: 80)

21) 김명희(1980)에서는 '-느라고'의 선행 용언으로 개인적인 감정 또는 감각 체험을 나타내는 동사(좋아하다, 싫어하다, 추위하다 등)를 쓸 수 없다고 했는데, "<날말편1> 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필자들은 하루하루 놀라고 기뻐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기도 했다."(김경원·김철호 『국어 실력이 밥 먹여준다—날말편 2』 4쪽), "진작 옮겨드렸어야 하는데 망설이느라 이렇게 늦어졌습니다."(이나미 『파묘꾼』 『유타지점에 보물지도를 묻다』 p.159) 등의 예문이 있다.

22) 서상규 외(2006: 157)에서는 '-느라'·'-느라고'가 '목적'이 아닌 '원인·이유'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안주호(2007a: 426)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먼 길을 오느라고 고생했다.”의 ‘고생하다’, 또는 ‘수고하다’, ‘힘들다’, ‘바쁘다’와 같은 용언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 등의 속담도 있듯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바쁜 것도 힘든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숙(1985: 131-138)에서는 ‘-느라고’의 후행절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그 때 후행절은 선행절의 배경을 나타내고 시간적으로는 선행절과 동시이거나 선행절보다 앞선다고 하였다.²³⁾

(60)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아내는 신이 났다. (이숙 1985: 132)

(61) 마음을 가다듬느라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희자·이종희 2001: 179, 2006: 134)

(62) 일이 잘 되느라고 마침 그때 남풍이 불어 왔다. (이익섭 2005: 367)

(63) 온천장에 1주일이나 묵으면서 사냥에 미쳐 돌아가느라고 품행이 모범 생처럼 단정했으니, 배통을 내밀 만도 한 일이었다. (정비석 『여인극장 4』 p.290)

덧붙여 말하면, ‘-느라’와 ‘-(으)니까’가 결합된 ‘-느라니까’, ‘-느라’와

에서는 ‘원인·이유’를 나타낼 때 후행절에 주로 동사가 쓰이며 ‘형용사, 있다/없다, 명사+이다’로 된 것은 없다고 했는데, 허웅(1999: 894)에서 지적했듯이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고단하다, (정신이/경황이) 없다’ 등 후행절에 형용사가 쓰이는 예는 많다.

23) 안주호(2007b: 103)에서는 선행절의 사건시가 후행절의 사건시보다 앞서는 경우, 후행절의 사건시가 선행절의 사건시보다 앞서는 경우, 선행절의 사건시와 후행절의 사건시가 동시인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으)면’이 결합된 ‘-느라’의 경우에도 뒤에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을 듣느라니까 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백봉자, 2006: 163)와 같은 예문만 보아도 알 수 있다.

3.3 -자

국립국어원(2005b: 847)에서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곧 이어 관계있는 상황을 제시할 어미 ‘-자’는 동사에만 붙는다고 했다. 한편 윤평현(2005: 208)에서는 동사뿐만 아니라 형용사와도 결합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허웅(1995: 946, 1999: 954)에서는 어떤 용언에도 붙는다고 하였다. ‘동시’ 또는 ‘나열’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가 ‘이다’와 어울리는 것은 이미 여러 개론서와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데, ‘계기’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가 형용사나 ‘이다’와 결합된 용례도 발견된다. (64)·(65)가 형용사와 결합된 용례이며, (66)이 ‘이다’와 결합된 용례이다.²⁴⁾

(64) 맞선 본 여자의 키가 크자 나는 마음을 놓았다. (윤평현 2005: 208)

(65) 학식이 높은 선비였지만 나라가 어지럽자 분연히 벼슬을 버리고 천장암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최인호 『길 없는 길 3』 p.203)

(66) 아버지가 한 번 더 아들을 단속하려 나서려는 눈치자 청년이 다시 발길을 멈춰섰다. (이청준 『새와 나무』 『서편제』 p.97)

24) 심혜령(1996: 398)에서는 허웅(1995)에 제시된 예문 가운데 ‘따뜻하자’나 ‘밝자’는 ‘따뜻해지자’나 ‘밝아지다’의 의미로서 형용사가 아니며 ‘이다’가 쓰인 것도 계기적 의미가 아니고 동시적 의미이므로 계기의 ‘-자’는 동사와만 결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형용사에 ‘-자’가 결합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을 의미적으로 해석하여 형용사가 아니라고 하면 형태론적 기준으로 이루어진 품사 분류를 무너뜨리게 된다.

3.4 -도록

국립국어원(2005a: 142)에서는 ‘목적’의 의미를 갖는 ‘-도록’은 동사와만 어울리며 일부 형용사와 어울리면 ‘목적’이 아닌 다른 의미가 된다고 한다. 한편 국립국어원(2005b: 375)에서는 동사와 일부 형용사에 붙어 뒤에 나오는 행위에 대한 목적이나 기준 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백봉자(2006: 226-227)에서 ‘-도록’은 원칙적으로 동사와만 어울리지만 동사화할 수 있는 몇 개의 형용사와 어울린다고 하여, 이러한 현상을 “일반 대중의 관용화”로 보았으며, 서정수(1988: 25)에서는 이것을 “빛나간 관용화”라고 했다. 한편 장광군(1999: 167-173), 강영(2002: 354-355), 윤평현(2005: 372-373)²⁵⁾에서는 형용사와 ‘-도록’이 결합되면 그 낱말에 따라 목적·정도·시간(도급)의 세 가지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다음은 형용사와 ‘-도록’이 어울려서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들이다.

(67) 들기 쉽도록 싸 드릴까요? (이희자·이종희 2001: 360, 2006: 218)

(68) 이 술은 여자들이 마시기에 좋도록 제조했다. (윤평현 2005: 372)

4. 기타 제약에 관한 기술

2장에서는 주어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3장에서는 서술어에 관한 문제를 살폈다. 여기서는 위에서 다루지 못한 몇 가지 문제를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25) 윤평현(2005: 373)에서 이러한 형용사는 과정 동사 ‘~어지다’가 줄어든 형태이거나 형태 변화 없이 [-상태성]의 의미 자질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았다.

우선 시제·상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국립국어원(2005a: 135), 백봉자(2006: 357-359), 진정란(2003: 354-355), 이규희(1983: 19-20), 허웅(1995: 796), 남길임(1998: 431) 등 많은 논저에서 원인·이유의 ‘-어서’ 앞에는 ‘-었-’이나 ‘-겠-’²⁶⁾이 올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이상복(1978)에서는 원칙적으로 ‘-었-’과 ‘-어서’는 결합될 수 없지만 특수한 예외 현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겠-’과 ‘-어서’는 몇 가지 조건 아래에서 결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⁷⁾ 실제로 다음과 같이 ‘-었-’이나 ‘-겠-’이 붙은 형태로 굳어진 표현의 경우에는 그대로 ‘-어서’와 결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69) 노인이 혼자 사는 것이 안됐어서 쌀을 한 말 보내 주었다. (이상복 1978: 63)
- (70) ……원체 처음부터 이쪽에서 친해지고 싶어 안달을 했던 아이는 안 있어서, …… (이호철 「고해성사」 『2001년을 대표하는 문제 소설』 p.240)
- (71) 그것보다 이것이 낫겠어서 이것을 샀다. (이상복 1978: 65)
- (72) “상관없어. 내가 못 견디겠어서 그러는 거니까.” (조창인 『아내』 p.213)

또한 백봉자(2006: 267)에 ‘-(으)려고’는 후행절에 현재시제와 완료시제²⁸⁾만 쓴다는 지적이 있다. 김진수(1988: 55)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는데, 거기서는 ‘-겠-’과 결합되는 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강인환(1995: 146)에서는 ‘-(으)려고’의 후행절에는 제약 없이 ‘-었-’·‘-겠-’ 등이 쓰인다고 하였다. 실제로 다음처럼 ‘-(으)려고’ 뒤에 ‘-겠-’이나 ‘-을 것이다’가 쓰인 문장도 나타난다.

26) ‘-겠-’이나 ‘-을 것이다’는 본래 시제 또는 상의 범주에서 다루기보다 서법 범주에서 다루어야 마땅하겠지만 여기서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따른다.

27) 백낙천(1999: 149), 윤평현(2002: 124)에서도 ‘-겠-’과 ‘-어서’의 결합은 인정했다.

28) ‘완료시제’라는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 ‘과거’는 ‘시제’의 개념이지만 ‘완료’는 ‘상’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 (73) “(전략) 죽음이 두려워 약속을 배반하고 되돌아가면 금후에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겠소?” (정비석 『소설 손자병법 1』 p.245)
- (74) “그렇군요. 분명히 양 중장님과 지휘관들을 직접 체포하려고 들 것입니다. [……]” (김백 『Republic of 한반도 3』 p.220)

다음으로 문장 종류와 관련된 문제를 고찰한다. 국립국어원(2005b: 665, 66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2005a: 243), 이희자·이중희(2001: 517, 2006: 278-279), 이익섭(2005: 375) 등에 의하면 ‘-(으)려고’ 뒤에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올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다음처럼 ‘말다’ 부정이 오면 명령문이나 청유문도 온전히 성립된다. 이 사실은 김종록(1994: 302), 윤평현(2005: 346-347)에서도 지적되었다.

- (75) 아, 제발 나를 종교와 도덕적 신념으로 훈계하려 하지 마시라. (김하인 『사랑의 기원』 p.106)
- (76) 항상 황금 덩어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윤영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책』 p.131)

그리고 이규희(1983: 148-149)에서는 ‘-거든’이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만 쓸 수 있고 서술문이나 의문문에는 쓸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구현정(1992: 441-442), 윤평현(2005: 109-110), 국립국어원(2005b: 7-9), 백봉자(2006: 81-82), 서상규 외(2006: 25) 등에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 이외에 서술문이나 의문문에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다음과 같이 서술문이나 의문문에 ‘-거든’이 쓰이는 예들이 나온다.

- (77) “(전략) 이왕 남의 힘을 빌리려거든 우리 같은 강대국과 어울려야만 사가 형통하는 법이지요. 사실이 안 그렇소? 하하하.” (정비석 『소설 손자병법 1』 p.247)

- (78) “(전략) 그러므로 태자가 기어이 원수를 값으시려거든 차라리 정나라와 손을 잡으심이 어떠하겠소이까?” (정비석 『소설 손자병법 1』 p.247)

마지막으로 부정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국립국어원(2005a: 121-124)에서는 ‘-자’ 앞에는 부정 표현이 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 데 비하여, 윤평현(2005: 221)에서는 ‘-자’ 앞에 ‘안’ 부정도 ‘못’ 부정도 제약 없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들을 보면 부정 표현과 ‘-자’의 결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79) 해도 해도 안 되자 이 학생은 나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식 『마음이 마음을 만날 때』 p.101)
- (80) 당시 피트는 에릭 클랩튼이 정신을 못 차리자 하와이안 기타로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안재필 『세기의 사랑 이야기』 p.30)

5. 마무리

이상에서 한국어교육 개론서 등에 있는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관한 기술을 살폈다. 지면의 제약 때문에 논하지 못한 내용도 많이 있으나, 문법적 제약을 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 책 안에 일관성이 결여된 기술과 언어사실에 어긋난 여러 기술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는 올바른 기술이 있는데 한국어교육 개론서에서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학술 논문에 잘못된 기술이 있는데 한국어교육 개론서에서 올바르게 기술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이제 한국어교육 개론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한 책 안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자들 간의 상의를 통해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개론서의 기술이 언어사실과 다른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서 대처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기술 내용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도 문장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선행 용언의 제약 중 ‘-(으)려고’나 ‘-(으)려면’이 형용사나 ‘이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술은 일단 타당한데 약간 예외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으)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뒤에 주로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의 동사가 오는 용례도 적지 않으며, 특히 ‘뛰 하러’라는 형식으로 쓰일 때 후행 용언에는 거의 제약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표현을 수정하고, 예외적인 현상까지 아울러 기술해 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개론서에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원칙적으로 형용사가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 하겠다.

둘째, 의미기능에 따라 제약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으)면서’에는 흔히 거론되는 ‘동시’와 ‘대립’의 의미 이외에 ‘계기’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그 중에서 ‘동시’나 ‘대립’을 나타낼 때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대체로 일치하는데, ‘계기’를 나타낼 때에는 두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또 ‘-(으)려고’도 ‘목적·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는데, ‘징조’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두 주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그 의미기능에 따라 제약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실제 언어 현상에 완전히 어긋나는 기술로서 가장 심각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자’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반드시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기술이 여러 책에 나오는데,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일치한 용례들이

예외라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타난다. 즉 연결어미 '-자'에는 주어 일치 제약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모두 가르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의 언어 현상 중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치지 않을 것인가, 가르친다면 어느 단계에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논의는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 교육에서는 간결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개론서에서 “반드시 ~”, “꼭 ~”, “항상 ~”, “절대로 ~”, “~만 쓰인다”, “~는 쓰이지 못한다”는 식의 기술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러나 언어 현상에는 항상 예외가 있게 마련이다. 간결한 기술을 위해서 예외를 숨겨서는 안 되며, 한국어 교육 개론서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국어의 언어 현상을 충실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연구를 대비하면서 더 나은 기술을 고찰해 보았는데, 그러나 어떤 선행 연구와도 조금씩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한국어교육 개론서들의 문법 기술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문법 연구와 문법 기술의 검증 작업이 더욱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07. 10. 30. 투고되었으며, 2007. 11. 15. 심사가 시작되어 2007. 11. 29. 심사가 완료되었음.

참고 문헌

- 강 영(2002), 「'-도록'의 의미 범주 연구」, 『21세기 한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329-360쪽, 한국문화사.
- 강인환(1995), 「접속어미 '-러, -려고, -고자'에 대한 연구」, 『교육논총』 11, 111-151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국립국어원(2005a),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국립국어원(2005b),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명희(1980), 「연결어 “-느라고”의 통사·의미상의 제약 (1)」, 『이화어문논집』 3, 197-203쪽,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 김수정(2004),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 어미 연구』, 한국문화사.
- 김종록(1994), 「국어 접속문의 통사특성과 서법 제약」, 『우리말의 연구』, 293-309쪽, 우골탑.
- 김진수(1988), 「접속문의 시제문제(Ⅰ)」, 『언어』 9, 43-57쪽,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 김진수(1991), 「접속문의 시제문제(Ⅱ)」, 『어문연구』 22, 29-48쪽, 어문연구학회.
- 김혜성(1993), 「'-도록'의 의미에 관한 연구」, 『말』 18, 63-79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남길임(1998), 「'-겠' 결합 양상에 따른 종속접속문 연구」, 『국어 문법의 탐구 IV』, 423-451쪽, 태학사.
- 노매[野間秀樹](1996), 「한국어 문장의 계층구조」, 『언어학』 19, 133-180쪽, 한국언어학회.
- 박기덕 외(2003),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 백낙천(1999), 「접속어미 목록 설정과 관련한 몇 문제」, 『동악어문논집』 34, 143-164쪽, 동악어문학회.
- 백낙천(2000), 「통합형 접속어미의 형태 분석과 의미 기술」, 『동악어문논집』 36, 165-182쪽, 동악어문학회.
- 백낙천(2001), 「통합형 접속어미를 구성하는 형태소와 의미 연구」, 『어문연구』 29-3, 28-54쪽,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백봉자(1980), 「연결어미 ‘-느라고’, ‘-느라니까’, ‘-느라면’의 의미와 기능」, 『말』 5, 77-93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백봉자(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하우.
- 서상규 외(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신원프라이.
- 서정수(1988), 「어미 “게”와 “도록”의 대비연구」, 『말』 13, 23-52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부.
- 서태룡(1998), 「접속어미의 형태」, 『문법 연구와 자료』, 435-464쪽, 태학사.
- 송창선(1998), 「접속어미 ‘-면서’의 통사적 구조」, 『어문학』 65, 67-86쪽, 한국어 문학회.
- 심혜령(1996), 「이른바 계기적 접속어미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 III』, 379-411쪽, 태학사.
- 안주호(2001), 「연결어미 ‘-길래’의 통사·의미적 특성」, 『국어 문법의 탐구 V』, 93-125쪽, 태학사.
- 안주호(2007a), 「현대국어 연결어미 {-느라(고)}의 특성」, 『언문연구』 53, 415-433쪽, 언문연구학회.
- 안주호(2007b), 「연결어미 {-느라고}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62, 97-121쪽, 한국언어문학회.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1998),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 오경진(2003), 「인과관계 의미표현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377-398쪽, 한국문화사.
- 요시모토[吉本一]·나카니시[中西恭子](2007), 「한국어교육 개론서의 문법 기술 고찰」, 『한국어 교육』 18-2, 221-242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평현(1998), 「접속어미의 의미」, 『의미론 연구의 새 방향』, 253-303쪽, 박이정.
- 윤평현(2002), 「한국어 접속어미의 의미」, 『한국어학』 17, 111-134쪽, 한국어학회.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이규희(1983), 「동의적 연결어미의 구문상 제약」, 『말』 8, 129-149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상복(1978), 「국어의 연결어미에 대하여」, 『말』 3, 59-79쪽, 연세대학교 한국

어학당.

- 이 숙(1985), 「연결어미 ‘-느라고’의 의미적 통사적 분석」, 『말』 10, 125-145쪽,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은경(1998), 「접속어미의 통사」, 『문법 연구와 자료』, 465-489쪽, 태학사.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카라시[五十嵐孔一](2002), 「{-느라(고)}에 대하여」, 『문법과 텍스트』, 483-505쪽,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희자·이종희(1999), 『사전식 텍스트 분석적 국어 어미의 연구』, 한국문화사.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 조사사전』, 한국문화사.
- 이희자·이종희(2006), 『한국어 학습 학습자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 장광군(1999), 『한국어 연결어미의 표현론』, 월인.
- 정연희(2003), 「연결어미의 의미확장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399-482쪽, 한국문화사.
- 조오현(1992), 「현대국어의 이유씨끝 연구」, 『한국어의 토씨와 씨끝』, 403-431쪽, 박이정.
- 진정란(2003), 「학습자 중심으로 본 이유의 연결표현」,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345-376쪽, 한국문화사.
- 최현배(1929/1999),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허동진(2006), 『한국어 어미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 허 용 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 허 용(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 문화사.
- 허 용(1999),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 문화사.
- 시바[柴公也](1994), 「「~(으)면서」の意味と用法について」, 『熊本学園大学 文学・言語学論集』 1-1・2, 133-153쪽, 熊本学園大学.
- 이카라시[五十嵐孔一](1998), 「現代朝鮮語の用言接続形 <-느라(고)> について — 「タクシス」と 「凶と地」の観点から—」, 『朝鮮学報』169, (1)-(52)쪽, 朝鮮学会.

■ 국문초록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대한 기술 방법

요시모토 하지메(吉本一)

이 논문은 한국어교육 개론서 등에 있는 연결어미의 문법적 제약에 관한 기술을 살핀 것이다. 그 결과, 한 책 안에 일관성이 결여된 기술과 언어사실에 어긋난 여러 기술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한 책 안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자들 간의 상의를 통해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편 개론서의 기술이 언어사실과 다른 경우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진다. 이들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첫째, 기술 내용에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데도 문장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것은 많은 개론서에서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는 원칙적으로 형용사가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약간의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 하겠다.

둘째, 의미기능에 따라 제약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연결어미의 경우에는 그 의미기능에 따라 제약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실제 언어 현상에 완전히 어긋나는 기술로서 가장 심각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술은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주제어] 연결어미, 문법적 제약, 선행절, 후행절, 주어, 서술어

■ Abstract

On the description of grammatical restrictions
concerning conjunctive endings

Yoshimoto, Hajime

In this paper we examine how the functions of conjunctive endings are described in textbooks on Korean language teaching. Our analysis revealed a number of contradictory descriptions within a book, which may be modified relatively easily. However, descriptions that do not adequately explain the actual usage of conjunctive endings are also found abundantl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we propose three solutions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oblems in the descriptions. First, there are cases where descriptions a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actual usage but not entirely. For these descriptions, we suggest minor corrections. In addition, we suggest that some explanations for counter examples should be added to the descriptions. Second, we point out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restrictions on the use of conjunctive endings can be explained by semantic condi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functions of these conjunctive endings are explained based on their morphological and semantic conditions. The most serious problem we identified is that there are descriptions that are largely inconsistent with the actual uses of conjunctive endings.

[Key Words] conjunctive ending, grammatical restriction, preceding clause, following clause, subject, verb